우리곁에 다가서는 거인의 실상

학술특집

황화(黃禍)와 황사(黃砂)의 비교연구

정치·경제·문화적 황사현상 실감케 해 한국적 전통의식 계승발전이 대응자세

1. 황하와 황색인종

북중국의 넓은 평야를 가로질러 동쪽으로 흐르는 황하 유역은 세계고대문명 발생지의 하나로서 동아시아 문명의 기원지이다.

이 황하는 고대부터 자주 범람하여 홍수를 예방하거나 홍수후 토지의 재정리 등을 위한 치수사업을 통하여 중국의 문명은 발전하였다. 이러한 자연재해와 치수의 관계를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A.토인비(1852-1888)는 그의 문명이론인 역경계정론의 한 모델로 삼았고, 칼 비트포겐(1896-1958)이나 칼 마르크스(1818-1883)등도 이를 중국 전제사회의 기반으로 보았다.

한편 몽고나 중국북부의 황토지대로부터는 미세한 토사들이 편서풍을 타고 한반도에 불어와 예로부터 봄철이면 황사현상을 가져왔다.

필자는 이러한 자연적 배경과 세계 최대의 인구와 가장 장구한 역사를 가진 중국에 대한 서양인과 우리들의 전통적 시각을 기반으로 현재의 시점에서 황화론과 황사의 현상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황화론(Yellow Peril)

13세기 몽고군의 유럽의 폴랜드까지를 휩쓴 전격적인 진격과 두 세기를 넘는 러시아내 킵차크한국의 건설은 서구인들에게 엄청난 위협을 주었다. 그 후 서양인들이 가졌던 황색인종에 대한 위구심은 19세기말 서양에서 본격적으로 일기 시작하였다.

1895년 청일전쟁에서 지금까지 세계사의 무대에서 별다른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일본이 승리하고 중국대륙에 진출할 때 러시아·독일·프랑스는 삼국간섭을 통해 일본의 요동반도 할양을 반대하여 그의 대륙진출을 견제했다. 그후 1900년 중국인의 기독교 탄압에 항의하여 벌어진 의화단 사변에서 서양의 8개 강국은(일본을 포함) 중국을 잔인하게 유린하였다.1905년 러일전쟁에서 작은 섬나라인 일본이 세계 최강의 러시아 육군을 격멸시킨데 대해서 서양인들은 또 한번 황색인종에 대한 위구심을 느꼈던 것이다.

2차대전중 일본의 맹렬한 팽창이나 대전후 1849년 거대한 중국대륙의 통일과 공산화는 유럽인들에게 다시 한 번 역사적인 황화의 위협을 예상하게 해 주었다. 1989년 「분열된 세계의 분단된 국가」였던 독일의 통일로 소련과 바르샤바조약군을 적으로 했던 서구열강들이 이제 적이 사라진 상황에서 환경문제와 일본을 새로운 두 개의 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이 문화혁명등 대혼란을 겪은 후 80년대 후반이래 정치적 안정과 특히 역사상 가장 어려웠던 북방문과 함께 새로어 커다란 경제의 본류으로서 그 위상을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미국, 영국등 서양인들은 다시 중국에 대해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어 홍콩문제에 대한 영국패튼(Patten)총독의 정책처럼 또 다시 새로운 견제를 시작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3. 황사의 들풍

그 커다란 황하의 물줄기가 동으로 흘러 황해로 들어 가듯이 북중국의 황토지대로부터는 거의 누런 토사들이 바람에 날려 우리나라의 상공에까지 이르렀다. 이 때문에 우리 한반도는 먼 옛날부터 3-5월간 봄철이면 이 황사현상을 겪게 되었다. 태양이 빛을 잃어 하늘이 황갈색이 되고 널어 놓은 빨래가 먼지로 덮히고 요즘에는 새워놓은 자동차 위에도 이 황사의 먼지가 쌓여진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나는 중국이 얼마나 우리로 부터 멀지 않은 곳이며 그 영향이 얼마나 큰 것임을 역사와 함께 느끼곤 한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남북관계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를 둘러싸고 매우 심각한 논의와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 그러나, 중국만이 이 북한을 설득시키거나 영향력을 줄 만한 나라로서 생각되어 미국이나 우리의 외교도 그의 역할을 중국에 기대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눈앞에 닥아오는 황사현상 못지않게 정치적 황소와 경제성장을 집중하면서도 역사상 소홀히 했던 남방의 태평양 진출을 시도하고 있어 동남아국가와 이해당사국인 미국·영국·일본 등의 경계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1997년 영국으로 부터 홍콩을 반환 받고 1999년 12월 마카오를 포르투칼에게서 넘겨받으면 16세기 중엽이래 계속되던 상징적인 유럽의 식민지시대는 중국에서 종말을 고하게된다. 한편, 지금과 같은 속도로 경제성장을 계속하고 서기 2천년 복경 올림픽을 유치하며 작년 전당대회에서 계획한대로 사회주의 중국건설 1백년의 대장정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엄청난 변화의 결과는 황사가 날아올 정도로 사회상으로 중국의 영향을 실감케 해 주는 것이다.

사실상 중국은 1840년 아편전쟁을 통해 영국의 무력에 굴복한 이래 민주공화국과 인민공화국,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개방과 폐쇄, 근대화운동을 둘러싼 1백50여년의 엄청난 진통의 드라마를 겪은 후에 오늘날에야 안정과 평화를 되찾았다. 더구나 역사적으로 흉노와 돌궐, 거란과 여진, 몽고와 만주등을 비롯하여 최근 소련에 이르기까지 최강의 적을 항상 북방에 가져 엄청난 만리장성의 유산을 남겼다. 그러나 중국은 이제 소련의 붕괴로 상당한 기간 그에 대한 군사적인 부담이 줄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은 군비의 축소와 경제성장을 위한 남방의 개방과 폐쇄, 근대화운동을 둘러싼 1백50여년의 엄청난 진통의 드라마를 겪은 후에 오늘날에야 안정과 평화를 되찾았다. 더구나 역사적으로 흉노와 돌궐, 거란과 여진, 몽고와 만주등을 비롯하여 최근 소련에 이르기까지 최강의 적을 항상 북방에 가져 엄청난 만리장성의 유산을 남겼다. 그러나 중국은 이제 소련의 붕괴로 상당한 기간 그에 대한 군사적인 부담이 줄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은 군비의 축소와 경제성장을 집중하면서도 역사상 소홀히 했던 남방의 태평양 진출을 시도하고 있어 동남아국가와 이해당사국인 미국·영국·일본 등의 경계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4. 역사의 거인 중국

유구한 역사와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우리의 전통적 이웃인 중국이 금세기 말부터 다음 세기의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그의 역할은 특히 정치적인 면에서 또는 경제적인 면에서 그리고 문화적인 면에서 이 봄의 우리 하늘을 덮고 있는 황사현상처럼 우리를 압도할 것임에 틀림없다. 이 봄철에 일고 있는 황사현상처럼 공업화된 중국이 배출하는 오염된 대기와 황해로 쏟아내는 폐수들 역시 이미 심각한 우리의 환경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다. 1997년 홍콩과 1999년 마카오 회수 후 2천년 올림픽 대회로 약진하는 중국은 장을 깬 사자의모습으로 또는 거대한 용으로서 또 한번 서구인들에게 황화의 위협국으로 떠 오를지도 모른다.

한편 우리들에게는 오랜 역사에서 보아 왔듯이 가장 크고 가장 두려운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써 모든 분야에서 그의 영향력은 서서히 그러나 엄청나게 황사처럼 쏟아져 올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며 유구한 역사의 전통에 의해서 우리의 올바른 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만이 갈 수 있는 올바른 길을 찾는 최선의 노력을 계속한다면 황사가 날아 올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우리도 그곳으로 영향을 날려 보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황사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대응자세는 바로 그 황사의 고향을 보다 잘 알기 위한 우리의 세심하고 끈질긴 연구와 노력뿐이다.

1961년후 32년만에 맞은 거센 개혁의 파도가 아무리 우리를 흥분속으로 몰아 넣어도, 황사속에서 캠퍼스의 꽃잎들이 눈처럼 우리 머리위에 쏟아져도, 우리는 역사와 현실의 엄연한 연속선상에서 우리의 할일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1949년후 우리와 무관한 것처럼 느꼈던 중국이 지난 수천년 역사에서처럼 이제 다시 우리 곁에 바짝 다가서고 있는 엄청난 거인의 실상을 나는 이 봄의 황사속에서 실제로 보는 듯하다.

신 용 철

〈문리대교수 사학〉

반드시 지켜져야 할 쌀농사

— 올바른 쌀문화 전승을 위한 제언

본고는 우리의 기본식량인 쌀이 갖는 의미를 재조명하고 수입개방의 부당성을 알리고자 지난호 쌀의 기원과 전파에 이어서 게재되었다.
(편집지註)

Ⅲ. 韓國人과 쌀

우리나라의 가을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들 한다. 고요한 농경문화의 나라 한국인은 순박하고 인정이 넘치는 민족이었다. 그들은 수천년 동안 그들의 의식주를 농업에 의존해 왔으며 그들이 가꾸는 농작물 중 쌀을 으뜸으로 섬겼다.

그토록 우리 민족이 소중하게 여기던 쌀이 천대를 받기 시작한것은 서양의 빵 문화가 들어와 정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다.

과거 쌀이 부족하던 시절의 위정자들은 과학자들을 앞세워 밀가루에 영양분이 많다고 선전해 왔는데, 실은 단백질이 1~2%높을 뿐 그 질이나 소화효율로 보아 쌀이 우수하며 더욱이 쿰밥은 영양면에서 월등하다. 우리나라 기후풍토는 밀재배에 적합하지 않다. 7~8월의 장마와 고온다습한 기후는 쌀 농사에 적합하며, 현재 단위면적당 쌀생산량은 핵타당(약3천평)6톤이 넘는 세계 제일의 소출을 낼만큼 품종이나 재배기술에서 우리나라가 앞서고 있다. 그래서, 1977년부터는 쌀 자급이라는 단군이래의 민족적 숙원을 달성시켰다.

쌀은 국가안보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낼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귀한 작물이다. 만약 우리의 전통적 쌀문화가 소멸된다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세계적 흉년이나 전란시에 우리 사천만은 어쩌 될 것인가. 그래서 쌀 생산은 자본주의 경제이론을 초월한 우리민족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과제이다. 21세기에 가서는 세계인구가 60억이 넘을 것이며 개발도상국에서의 식량소비가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을 때 이므로 세계 식량부족은 명약관화한 일이며 그때 가서 쌀농사를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Ⅳ. 쌀농사와 환경

쌀생산은 식량공급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생태계의 유지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대륙의 동쪽에 위치하여 계절풍의 영향을 직접 받게되며 여름에는 열대지역과 맞먹는 고온다습한 기후를 가지며 일장이 길고, 7~8월에는 연 강수량중 70%가량의 집중강우가 계속되어 쌀농사를 짓기에 적합한 기후이다. 일시에 비가 많이 오기때문에 이 물을 그대로 방류시킨다면 온나라가 홍수에 휘 말릴것이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국토전역에서 논농사를 짓기 때문에 30%이상의 많은 물이 논에 저장되어 홍수를 막고 소중한 토양의 유실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밀농사를 위시한 밭농사가 위주이기때문에 1년에 10억톤의 토양이 유실된다고 하며 농업폐지론까지 일부 자연보호학자에 의해서 주장되고 있다.

논에 저장된 막대한 양의 물은 지하수의 원천이 되어 식수는 물론 공업용수로 쓰여지게 되며, 증발습도를 높여주어 식생을 무성하게 해주고 있다. 만일 우리국토에서 벼농사를 안 한다면 우리국토는 건조해지고 황폐화되어 사막화되고 말것이다. 그 좋은 역사적 교훈을 고대 메소포타미아가 남기고 있다. 빗물은 산과 들에서 각종 영양분을 운반하여 논에 퇴적 시킴으로서 땅을 비옥하게 만들며 부성하게 자라는 벼는 쌀을 만들기위해 공중에서 탄산가스를 제거(흡수)해주고 산소를 방출하여 공해를 막아준다. 그래서 쌀과 우리 민족은 공생의 인연을 갖는 작물이다.

Ⅴ. 지켜야할 쌀농사

쌀과 콩, 그리고 채소는 우리 민족을 수 천년동안 이땅에서 건강하게 키워왔는데 밀가루문화의 침투로 고기를 더 먹어야되고 쌀농사는 해체되어가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어린 시기의 먹이습관은 평생 간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어른들 스스로가 서양 식문화에 빠지지말고 전통 식문화를 어린들에게 계승시켜주어야 할 것이다. 식품과학자들은 밀가루식품에 버금가는 편리하고 영양가 높은 현식품개발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쌀농사의 감소는 국토자원의 손실일뿐 아니라 환경과 생태계의 파괴를 유발하여 우리민족생존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쌀농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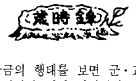
권 신 한

〈산업대교수·농학〉

농산물 수입개방 민족생존 위협

한국적인 전통·식문화 정착 시급

신정부의 족제비 사냥



각금의 행태를 보면 군·교육·정치·경제계 어디 할것없이 사회전반에 걸쳐 총체적 난국이라 할만하다.

재산공개를 통해 드러난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근성, 최고의 지성임을 자부하는 상아탑에서의 비리, 엄정해야할 입시관계자에 의한 정답유출, 금융계의 부정대출과 감사원에의한 특혜감사, 복마전을 연상시켜는 군대내 각종 비리들을 비롯하여 경부선 일차탈선, 수십명의 목숨을 앗아간 정신병원 화재사고, 군경의 허술함을 비웃듯 서울의 백주대로에서 있었던 무장탈영병과의 총격전 등 어느하나 벌이진 입을 다물지 못하게하는 일들이다. 이제는 아침에 신문을 펴들기가 두렵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급과 수요가 만나는 점에서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기초적 경제원칙이다. 하지만 그 매매의 대상이 무엇이냐에 문제가 있다. 돈과 권력이면 무엇이든 다 된다는 자본주의 단면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일련의 사건들은 무엇보다 군사정권의 비호아래 철저히 묵인되오던 곪은 상처였음은 두말할 나위없다. 이렇듯 그간 덮어져오던, 그저 외혹으로만 항간에 떠놀던 일들이 하나하나 그 껍질이 벗겨지고 있는 요즘 시원함 저 구석에 과연 우리가 누구를 위해 뛰고 있었는가 라는 의문이 남는다. 하늘·땅·바다에서 외로움을 달래며 묵묵히 주어진 책임을 완수해온 수많은 군인들, 무거운 책가방에 짓눌린채 입시지옥을 겪는 수험생들, 부족한 자금에 허리띠를 졸라매던 중소기업들 이들에게 구정권은 각종 비리들로 그 보답을 대신했고 그러한 비리들의 해결은 커녕 쉬쉬하며 얼버무리고 말았다. 옛 이야기 중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어느날 닭장을 지키던 농부가 족제비가 닭을 잡으러 와서 유유히 닭을 물고 사라질때까지 "들어오기만 해봐라" "닭을 톨고 가기만 해봐라" "다시 오기만 해봐라"고 중얼거리고만 있었다한다.

항시 말만 앞세우고 실천이 따르지 않는 농부와 같은 구정권의 모습은 더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비리 스캔들이 명쾌하게 파 헤쳐진 적이 별로없다. 있다 하더라도 소수 관련자의 경미한 처벌로 끝나버려 다시 유사한 비리가 등장하곤 했다. 이웃나라 일본이나 미국같은 경우만 보아도 공직자들의 비리는 한 정권을 물갈이 시킬만큼 위력적이었다. 차후에 구정권의 비리는 신정권이든 어떠한 외혹도 호지부지 미결로 남겨서는 안된다.

이번 정부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족제비를 단번에 쫓아내는 정부이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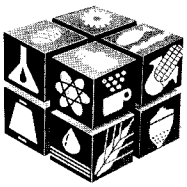
SAM YANG GROUP

깨끗한 환경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산은 세상에서
가장 큰 캠퍼스입니다!

책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지만
젊음이란 그릇을 다 채우기엔
책만으론 오히려 부족함이 있습니다.
자신의 한없이 높고 큼으로 겸손의 미덕을
알려주고, 험준함과 불굴의 위용으로
강인한 호연지기를 길러주는
이땅의 산은
내일을 향해 뛰어가는
우리 젊은이들의 훌륭한 스승입니다.

산과 같은 진취적인 기상으로 내일을 생각하는 젊은이들—
삼양은 이런 젊은이들에게 뜨거운 격려를 보냅니다.



삼양

●주식회사 삼양사(社團, 서울, 서울, 化纖, 화장품) ●삼양냉동기주식회사 ●한도로드주식회사 ●삼양제당주식회사 ●한국화학주식회사 ●전북투자금융주식회사 ●주식회사 삼양에너지 ●한나상호사이버 ●삼양그룹중앙연구소 ●삼양그룹미래연구소 ●삼양그룹사업연구소 ●삼양물류㈜ ●수도물류㈜